

3 >> 법정부담금 논란



5 >> 자율운영제의 어제와 오늘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 대상 설명회

일시: 2014.3.26(수) 16:00~17:00
장소: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내용: 매그놀리아 인증제 개요 및 참여방법, 매그놀리아 인증시 혜택 및 질의응답
문의: 취업진로지원처 02-961-0167~8

대운동장 공공 기숙사 뜻밖에도 암초 만나 임대업자 “공실 보상”, 구성원 “어이없어”

일부 주민 기숙사 신축반대 공실(空室) 보상 요구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윤초임 기자 chom@khu.ac.kr

SPACE21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서울캠캠퍼스(서울캠) 대운동장 행복기숙사 건립이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달 21일 회기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스페이스21 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일부 임대업자의 고성과 집단퇴장 등으로 파행으로 끝나고, 이후 동대문구청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허가 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1월부터 임대업 종사 주민들을 중심으로 ‘회기지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학본부를 비롯해 서울시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신축기숙사 설립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대학주보 제 1523호 1면(2012.9.17.)>

신축기숙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 총 926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1인실 10실, 2인실 458실로 구성될 계획이다. 특히 일반적인 민자기숙사가 아니라 이번 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회기동 기숙사와 이문동 기숙사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일환인 만큼 저렴한 기숙사비가 예상된다. 이 행복기숙사 사업은 대학생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 2012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국토교통부가 저리로 건축예산을 지원해준다. 이미 우리학교는 신축기숙사를 위한 건축예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건축이 미뤄질수록 이자 부담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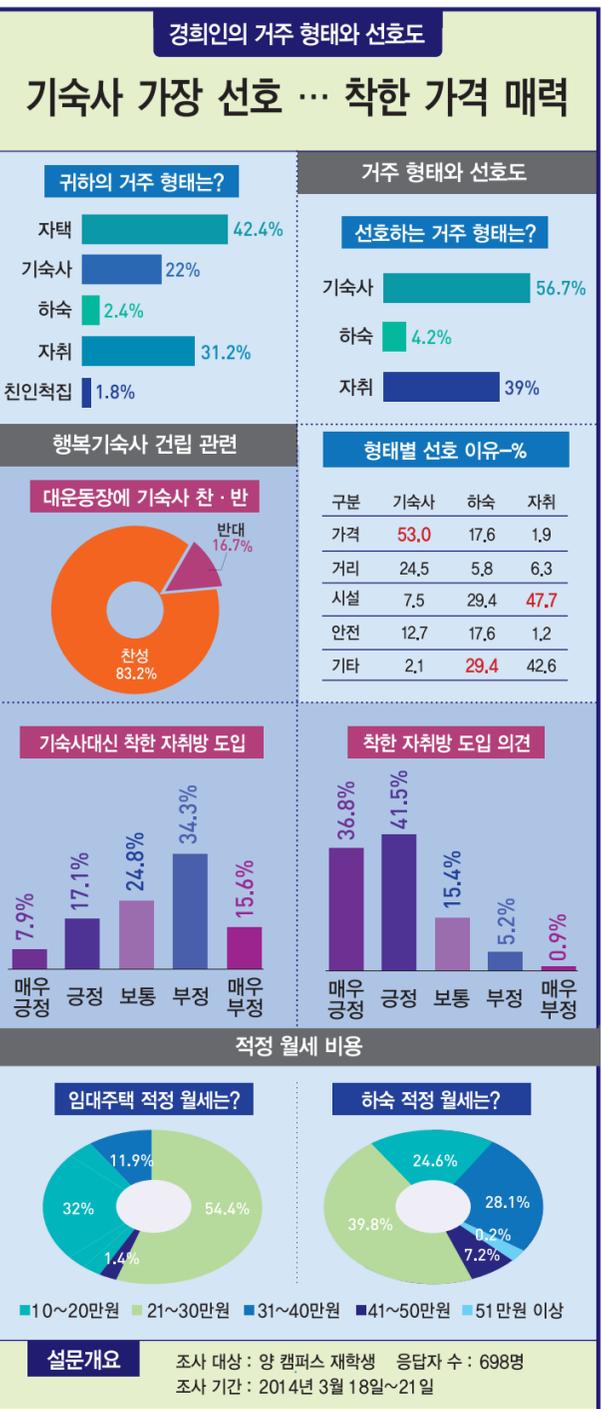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회기지역 발전협의회 주장의 핵심은 ‘기숙사로 인해 발생하는 회기동지역 하숙 및 자취 공실(空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회기지역 발전협의회 김광우 사무총장은 “기숙사수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학교의 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다만 1,000여 명의 학생이 한 번에 기숙사로 들어가면 공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기지역 발전협의회는 ‘착한자취방’과 같은 사업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의 자취방을 제공하고, 이를 학교가 학생과 연결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경희대의 발전을 발목잡으려는 것이 아니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학교·총학, “학생위한 기숙사 반드시 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학교와 학생회의 반응은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다. 서울캠 공공 기숙사 유한회사(SPC) 김동준 행정실장은 “우리학교 부지에 우리학교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짓겠다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 박이랑(사학 2008) 회장 역시 “현재 기숙사수용률이 서울캠의 경우 10% 미만인 상황에서 기숙사 신축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정작 거주할 학생보다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7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학사운영 비판한 송영복(스페인어학) 교수



“정직한 학사운영, 교육의 시발점”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스페인어 한마디 못하는데 졸업...그건 비리입니다.’ 우리학교 송영복(스페인어학) 교수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서 직접 작성한 기사의 제목이다. 그는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 교수의 기사에는 약 6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체로 공감하는 댓글이었지만 송 교수의 의견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존재했다. 대학생들은 취업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계속해서 졸업 비리를 눈감아 준다면 결국에는 사회에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자신이 속한 분야의 경쟁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송 교수는 “학생들이 졸업을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다. 졸업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남 앞에서 자신의 전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눈앞에 있는 취업을 위해서 평생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교수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어찌 이러한 글을 쓰면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지리한 고통으로 이어질 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외 공익은 모두를 위해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칙과 학과의 교육목표 그리고 교육과정 시행세칙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조치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한 정직한 학칙 운영에 대한 송 교수의 제언이 우리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대의 황무지에 핀 저주의 꽃, 《황무지》

휴머니티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교전의 사계 ㉞

이상출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이리 오라, 내 한 줌 먼지 속 죽음을 보여주리니.” 제1차 세계대전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1922년, 시월을 맞아 때마침 불어온 음습한 바람 속에 세상 모든 것에 지독한 저주를 퍼붓는 음울한 시가 런던에서 발표됐다.

시인은 34살의 미국산 토머스 스텐 엘리어트(Thomas Stern Eliot). 움푹 들어간 눈 밑의 다크

써클이 얇은 입술까지 처진 가늘고 긴 체구의 은행원이었다.

문명의 가장 추악한 것들에 냉소를 섞어 비판한 이 시는 서구문



문명의 가장 추악한 것들에 냉소를 섞어 비판한 이 시는 그 힘에도 불구하고 서구문명 전체의 정수를 담은 현대의 고전으로 추앙받게 된다.

명 전체의 정수를 담은 현대의 고전으로 추앙받게 된다. 여러 정치적 문화적 사정이 개입한 결과이지만 《황무지》(The Waste Land)가 이처럼 높게 평가되는 것은 작품 자체가 서구 문화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당대 모더니즘의 실험적인 형식을 통해 당시에 팽배했던 타락한 물질문명과 도덕에 대한 신랄한 고발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20세기 초 서구문단에는 이미 타성에 젖어버린 부르주아 미학

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자”는 모더니즘 미학이 위세를 떨쳤다. 20세기 이후 현대 예술이 기존에 형성된 예술관습을 파괴하고 새로운 소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는 전위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모더니즘의 이러한 노력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부에 걸쳐 전체 434행에 이르는 《황무지》는 한 줄도 빠짐없이 이런 모더니즘의 형식적 실험을 고스란히 구현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전문가 칼럼 연재

류재한 교수(동서의학대학원)

‘제3의학의 미래’ ㉞

▶ 6면



대학주보는 온라인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 이제 모바일 페이지로 따로 접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접속하는 단말기 사이즈에 맞춘 화면을 제공해 드립니다.
- ‘digest’ 로 기사 내용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 소셜 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시선

사설 신임 부총장의 조건 ‘신뢰감 있는 리더십’

발행일인 24일 현재, 서울캠퍼스(서울캠) 부총장 자리는 지난 4일 전임 안재욱 부총장이 해임된 이후 3주째 공석인 상태다. 물론 우리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과 행정, 교육과 연구 등 전 부문에 걸친 각종 현안들의 무게감과 그 중요성을 고려해보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적임자를 찾아내려는 신중한 인선과정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현안들의 빠른 선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시에 대학 행정을 책임지고 운영해갈 담당자를 인선하는 것도 신중함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하다. 때문에 서울캠 부총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현 상황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미 많은 구성원이 차기 서울캠 부총장 인선작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구성원 사이에서는 부총장 후보로 오른 몇몇 교원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고, 그들에 대한 하마평도 당연한 듯 뒤따르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대학주보는 새롭게 인

선될 차기 서울캠 부총장이 다음의 덕목들을 갖추고 있기를 희망한다.

가장 먼저, ‘열린 귀’를 갖고 있기를 희망한다. 2014년 현재 우리학교의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소통’일 것이다. 대학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구성원에게 정성껏 알리는 것도 ‘소통’이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소통’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귀담아 들으려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많은 리더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소통’을 제대로 구현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거의 모든 리더들이 ‘구성원과의 소통에 기반한 점진적 개혁으로 우리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약속을 실현한 인물보다는 ‘불통’으로 비롯된 신뢰의 상실로 쓸쓸히 퇴장한 인물이 훨씬 더 많았다. 지난 1년간 서울캠 부총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제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한 때다. 신임 서울캠 부총장은 바로 이런 인물이어야 한다. 우리학교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구성원들 사이에 팽배해있는 만큼, 교원이나 학생, 직원들과 현장에서의 밀도 있는 대화를 꾸준히 진행하며 구성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기를 희망한다. 대학이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정확히 인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말이다. 우리대학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필요 이상의 ‘위기’의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조직 전반을 경직되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다 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관적 낙관론 일색으로 대처하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성원의 에너지를 한 데로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이 ‘객관적인 눈’은 다층적으로 산적인 당면과제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미 교원 사회는 수업시수 증가, 연구비 축소 등으로 인한 불만이 누적돼가는 상황이고, 학생 사회 역시 대형 강의 급증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질적 저하 및 후퇴하는 교육환경 등에 대해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직원 사회 역시 정상적인 행정 운

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폭 삭감된 2014 학년도 예산안의 ‘충격’으로 인해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다. 구성원 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각각 위무하고 대학발전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구성원 전체에 심어주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때문에 신임 서울캠 부총장이 대학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점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정확한 현실인식만이 대학발전을 담보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신임 서울캠 부총장이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 ‘열린 귀’와 ‘객관적인 눈’은 결국 신뢰를 주는 리더십을 향한 덕목들이다. 지금 경회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책임감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가야 하는 서울캠 부총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지금, 2014년 3월의 시점에서 신임 서울캠 부총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 구축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구성원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리더십만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만을 삼키고 한마음으로 현실을 돌파해가도록 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생’ 이야기하며 ‘사익’ 추구하는 사람들

취재수첩

윤초임
(기자)



지난주 신축기숙사 건립에 대한 취재는 기숙사 신축에 반발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의 태도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회기동에서 수많은 취재원을 만났다.

그 결과 발전협의회와 주장과 사실 사이에 모순이 있었다. 우선 발전협의회는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정상적인 논의를 거부해왔다. 지난달 21일 실시된 SPACE21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발전협의회 소속 구성은 옥설과 집단퇴장으로 파행시켰다. 지난주 우리신문이 진행할 계획이었던 간담회 역시 당일 갑작스레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기시켰다.

또한 발전협의회는 우리학교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로 인한 공실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우리학교 앞 신축 고시텔이나 원룸은 공실을 찾기 어려웠다.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낙후된 시설-높은 비용이라는 ‘비정상적인’ 구조의 임대주택이었다. 공실은 기숙사 건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대업자의 문제인 것이다.

발전협의회는 태도는 진정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 이 의심이 사익추구를 위한 단체라는 확신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발전협의회는 반드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학주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총 698명의 양 캠퍼스 학생이 참여한 이번 인식 조사를 통해 기자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설 요건’과 ‘가격’ 사이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숙사에 비해 자취가 지나는 강점으로 학생들은 시설 요건을 꼽았지만, 시설 요건이 높을 수록 가격의 부담이 크고 가격이 부담이 낮으면 시설이 좋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더불어 발전협의회가 제시한 ‘착한 자취방·주민 기숙사’(2인 1실로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의 확대 계획에 대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률은 60%를 넘었다. 이는 자취의 높은 가격만 견어낸다면 기숙사와의 경쟁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의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착한 자취방·주민 기숙사’는 20명 선착순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낸 이후 현재 자취를 감췄다. 지난 3월 SPACE21 건설 사업단은 홍보를 약속한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정작 발전협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발전협의회와 일련의 태도는 진정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 이 의심이 사익추구를 위한 단체라는 확신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발전협의회는 반드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한다. 신축 기숙사의 수용규모를 줄이면 그만큼의 인원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있는가.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낙후 임대주택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 없이 학교에 일방적인 기숙사 축소 요구하는 것은 ‘때 쓰는’ 꼴로만 비춰질 뿐이다.

영웅을 기다리는 사회는

세시봉

김주환
(편집장)



요즘 영화관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그 중에서도 슈퍼 히어로 영화가 대세다. 화려한 특수 효과와 볼거리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고 혹평을 퍼붓는 사람도 많지만, 이를 인지하고도 ‘재밌다더라’ 하는 말에 끌리는 관객이 많은 것 같다.

언뜻 보면 굉장히 유치한 소재인 슈퍼맨, 스파이더맨 등도 화려한 CG와 함께 그럴싸한 실사 영화로 만들어지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은 나름의 진지한 분위기와 ‘히어로’에 대한 고찰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슈퍼히어로들의 ‘종합선물세트’ 격인 <어벤져스>는 우리나라에서 7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했고, 후속작 촬영지 중에 한국이 포함돼 벌써부터 화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영웅’의 활약상을 보고 싶어 가까이 지갑에서 배춧값 한 장씩을 꺼낸다는 것,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영웅을 갈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국민들, 특히 그 중에서도 2,30대 젊은 층의 선망을 받았던 안철수는 지지자들에게 있어 일종의 영웅이 아니었나 싶다.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분야인 컴퓨터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 젊은 사업가, 신(新) 지식인으로 이름을 떨치다 돌연 구태의연한 과거의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기득권의 성체’를 깨뜨리며 앵그리 버드 인형을 던지던 그는 충분히 슈퍼 히어로처럼 보일 만 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성 정치권인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물론 이후의 행보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 일부 지지자들이 느끼는 배신감,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안철수라는 ‘영웅’에게 열광한 심리의 기저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정치관을 그가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영웅은 항상 태평성대가 아닌 난세에 나타난다. 유비, 조조, 손권 등의 야심가들이 천하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던 <삼국지>의 시대는 외척과 환관의 권력 독점, 도적의 출현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직후의 혼란기 속에서 등장해 프랑스인과 당대 진보적 지식인들의 비호를 받으며 유럽 전역을 손아귀에 넣었다. 영웅을 갈망하는 사회는 그만큼 구성원들 사이에 ‘부조리’와 혼란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는 사회다.

등골이 휘는 등록금을 내고 명문대를 나와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취직을 한들 비정규직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결혼, 육아에 대한 공포는 또 어떠한가. 노후까지 생각하면 정말 앞날이 캄캄하다. 그들은 무력감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백마 탄 초인(超人)’을 기다린다.

독일의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영웅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한다면,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진정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백마 탄 초인이 아니라 이름 없는 99%다. 그저 자신을 구원해 줄 영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대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의 연대다. 선거로 시끄러울 때만 반짝하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닌,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구상하는 지성이다.

독일의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영웅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어벤져스>의 슈퍼히어로들처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한다면, 더 이상 영웅을 기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대형강의, ‘머릿수’로만 접근할 문제 아냐

와글와글 경희

김민정
(기자)



지난 17일부터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총학 홈페이지의 ‘경희신문고’를 통해 학생들의 대형강의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서울캠의 경우 대형강의가 지난해 대비 약 20배 증가했고, 이는 수업의 질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학생들은 SNS를 통해 ‘대형강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고 있다. 등록금이 아깝다’, ‘자리도 불편하고 공기도 탁해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인원수가 많다보니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형강의는 수강 인원이 100명 이상인 수업을 말하지만, 기자가 듣는 70명 정원의 수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처럼 대형강의 문제는 단순히 인원수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강 인원을 강의 성격에 걸맞은 규모로 설정하고, 불가피하게 다수의 인원이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 그에 걸맞은 시설과 여건을 갖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법정부담금 '45억 원',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논란

김민정 기자 jeong53@khu.ac.kr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올해부터 법정 부담금 중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사학연금만 부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캠 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등록금으로 나머지 법정부담금을 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관련기사 4면>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고용주인 대학법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지만 법인의 재정사정에 따라 학교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근거한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우리학교 법인(법인)은 2011학년도 법정부담금의 100%, 2012학년도는 99.9%를 부담했다.

법인이 법정부담금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2013학년도부터다. 2013학년도 제6차 이사회의회의록에 따르면, 제6호 의안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사학연금 74.3억 원만을 법인에서 부담한다’가 승인됐다. 또한 제7호 의안에서 ‘경희대학교 추가경정 자금예산 법인전입금 수입에서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39억원을 차감한다’가 의결됐다. 이후 예산사회에서 법인은 갑작스런 법정부담금 축소가 학교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 우리학교에 ‘경상비 전출금’이라는 명목으로 39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결국 이제껏 부담해왔던 수준의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게 된 것이지만, 경상비 지원은 2013학년도에 한해 일시적인 일이라는 것이 법인의 입장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는 우리학교 교비로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



국제캠 총학은 지난 4일부터 법정부담금 돌려받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경희학원 재무부 재무과 이혜진 계장은 “법인과 학교의 자금사정을 고려한 결과”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법인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대학도 연금부담금만 내는 추세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승인 없이도 학교로 전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총학 측은 법인의 운영 상 손실로 인한 결과를 학생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총학은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법정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한 학생 서명운동을 진행해 4,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지난 19일에 열린 국제캠 3차 등록금 책정위원회(등책위)에서 학생 위원들은 이를 대학본부 측에 전달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등책위에서 국제캠 부총장 행정실 정

순영 실장은 “대학본부 또한 법인에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아니면 경상비 전입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 전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예산원 예산팀 이승민 계장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등록금 회계에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4학년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교비회계 지출 부분에서 법정부담금은 교원법정부담금 약 89.2억 원과 직원법정부담금 약 34.8억 원을 합한 약 124억 원이다. 하지만 교비회계 수입 부분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의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약 78.9억 원에 불과하다. 우리학교는 차액 약 45.1억 원을 법정부담전입금 이외의 항목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법정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로 책정돼 있다. 총학 홍석화(화학공학 2008) 학자사무국장은 “차액인 45.1억 원이 경상비 전입금에서 빠져나갈지 등록금에서 빠져나갈지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확실하게 답변해주지 않았다”며 “등록금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언·구타’ 얼굴 붉힌 체육대학장,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체대 군대문화·가혹행위 논란

김민정 기자

지난 15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60년 전통의 K대학교 체대 실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수원에 있는 K대 국제캠 퍼스(국제캠) 체육대학(체대)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대다수의 동기들은 체대 내 군기를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음 학번들이 부당한 규정을 강요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학과 내의 28가지 규칙, 선후배들 간의 말이 오간 카카오톡과 페이스 북 캡처본을 게재했다. 또한 직접 기합을 체험했고 폭언·구타 등을 목격했다고 서술했다. 본문에 제시된 몇 가지 핵심어로 인해 글쓴이의 학교는 우리학교 국제캠 체대임이 자연스럽게 기정사실화 됐다. 최근 각 대학의 체대 규정 논란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 우리학교 체대 또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러 매체를 통해 논란이 커지자 체대 측은 즉각 조치를 취했다. 지난 18일, 체대 학생회는 각 학과의 학생장들과 모여 학내 규정에 대해 지켜나가야 할 부분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대 학생회 유문기(스포츠의학 2008) 회장은 “소위 말하는 ‘다’나 ‘까’ 용법이나 관동성명 등은 우리의 ‘전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지켜나갈 것이고, 파마, 염색, 화장 등 용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체육학과 내 28가지 규칙’이라고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적은 없고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일부 과장,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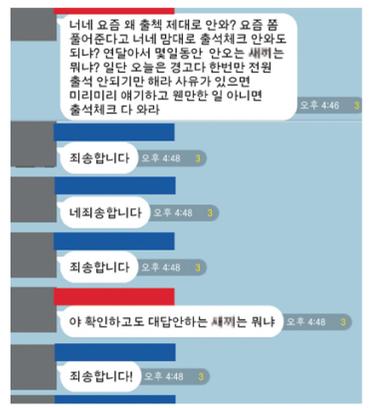
또한 같은 날, 체대 시청각실에서 체대 전의기 학장은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서면 설문조

사가 이뤄졌다. 전 학장은 “신입생들과 면담한 결과 각 학과별로 행동강령이 구전돼 온 것 같다”며 “일부 학생들이 전통과 안전의 명목으로 이를 곡해해 후배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상벌에 대한 체대 내규를 보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구타와 폭언에 대해서 전 학장은 “현재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물리적·정신적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체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대 재학생 A군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게시글에 대한 사실 확인 또한 이뤄졌다. 체대 학장과 학생회 측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경우 실제로 오간 대화 내용이 맞으며, 폭언과 욕설을 한 당사자를 확인해 14학번 후배들에게 사과를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대 학생회 측은 ‘새내기 교육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3학번이 고학번에게 건어차인’ 구타사건의 경우 새내기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의도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1면에서 이어짐

특히 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한 ‘착한자취방’ 사업의 경우 2년 전부터 학교에 제안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발전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공실 역시 낙후시설의 임대주택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기동 공인중개사 A 씨는 “경희대 정문쪽 신축 고시텔, 원룸텔은 공실이 없다”며 “학생들이 시설만 좋으면 대체로 학교주변에서 자취하려고 하다보니 결국 비는 곳은 연립주택을 개조한 자취방들”이라고 말했다. 이문동 공인중개사 B 씨 역시 “이 주변에 대학만 해도 몇 개냐”며 “일부 시설이 너무 안 좋은 곳만 학생들이 찾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중재자 부재로

학교가 직접 해결해야

학교주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주민들 역시 기숙사 신축에 우호적인 반응이다. 정문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 씨는 “회기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늘어나면 당연히 상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기숙사 건립이 회기동 발전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도 입장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학교주변 임대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역시 부재한 상황에서



신축 예정인 기숙사 조감도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동대문구청은 정작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다. 동대문구청 건축1과 측은 “제기된 민원이나 여러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공청회를 실시하는지도 모르겠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 잘 풀리지 않겠냐”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협의가 늦어지면

인·허가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결국 우리학교가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설명회가 파행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공식기구인 회기동자치위원회를 통해 보

다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온 우리학교의 취지에 따라 ‘진짜’ 회기동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회기동자치위원회 측은 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들과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학교와 적극적으로 의논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캠 총학 박 회장 역시 기숙사 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적인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서명운동이나 민원제기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기숙사신축이 이뤄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신문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양 캠퍼스 학생들의 기숙사건립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3.2%의 학생이 기숙사 건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의견을 표한 학생 117명 중 62명(52.9%)은 ‘기숙사건립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대운동장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대체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부지에 건설하길 바란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SPACE21 건설사업단 장 팀장은 “공사 중에도 대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PACE21 사업이 완료되면 운동장부지와 체육시설 등도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숙사와 하숙, 자취 중 56.7%의 학생이 기숙사를 선택해 가장

선호하는 거주 형태로 것으로 나타났고, 39%가 선택한 자취가 뒤를 이었다. 기숙사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53%로 꼽혔다. 반대로 자취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 47.7%가 시설여건을 꼽았다.

37.5% 가격이 가장 중요 시설 25.6%로 두 번째

이어서 만약 자취를 한다면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는가라는 질문에 37.5%가 가격을 꼽았고, 이어서 25.6%가 시설을 선택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가격을 주거 형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기숙사를 선호하면서도, 시설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공간도 시설이 좋다면 기숙사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착한 자취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36.8%, 긍정적이다 41.5%로 우호적이었다. 착한 자취방 도입시 예상 1인당 월세비용이 약 2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적정한 월세비용으로 54.4%로 가장 많이 선택한 21만 원에서 30만 원 가격대와 맞물린다. 다만 착한 자취방을 도입하는 대신 기숙사를 건립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15.6%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34.3%가 부정적이라는 선택했다. 이는 발전협의회가 제안한 ‘착한자취방도입과 함께 기숙사규모를 축소하자’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학생의견이다.

자율운영제 실패, 단대별 예산 확보 한계서 비롯

단과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장 권한 강화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끈다는 자율 운영제의 기조는 사립과 국·공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가에 흐르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도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아직 온전히 자리잡지 못하는 단과대학의 자율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운영제 기획, 이번호에서는 국내 대학들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동국대, 한양대 등 국내 대학들 역시 자율운영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사진: 김민준, 김민준

연재순서

- [1] 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어제와 오늘
- [2] 해외취재 - 학부별 자율성 높은 나혼대
 - 1. 재정운용 단과대학에 맡기다
 - 2. 학문의 특수성, 자율운영제에서 찾다
- [3] 국내 대학 자율운영제 현황
- [4] 우리학교 자율운영제의 미래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이정우 기자 cyanizm@khu.ac.kr

대학본부의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신속한 결정과 대규모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때문에 국내 대학이 급격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선호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학문의 다양성'에 기반한 '경쟁력'으로 변모하면서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는 그 요구를 담아내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행정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변화가 필요했던 국내 대학들에게 자율운영제는 '해답'으로 비춰졌고, 적지 않은 대학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우리학교를 비롯해 한양대의 '자율책임경영제', 동국대의 '자율예산제', 아주대의 '단과대학 배분예산제', 숭실대의 '자율예산제' 등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전체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기본 취지는 유사하다.

자율운영제 도입은 본부 중심의 획일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단과대학 차원의 과제 추진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의 큰 변화였다. 때문에 이런 이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대학은 각 단과대학 차원의 경쟁을 유도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례는 동국대다. 동국대는 균형성과표를 도입해 성과관리제를 실시하고, 대학자체평가의 강화를 통해 단과대학별 경쟁을 이끌어냈다. 동국대 정왕근 과장은 "자율예산

제 운영의 핵심은 성과평가"라며 "지난 6, 7년 간의 자체성과평가에서 상위권 단과대, 부서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는데 단과대학 간의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역시 이런 경쟁체제가 보다 효율적인 예산사용과 각 단과대학별 사업을 통한 특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등록금에 수입 의존 단과대학별 등록금 책정, 내부 반발

그러나 자율운영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 원인은 예산의 한계였다. 등록금이 수익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분위기로 인해 자율운영제를 위한 예산 사업은 대체로 실패했다. 동국대는 '단과대학별 등록금책정제도'를 지난 2010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결국 취소했다. 동국대 정 과장은 "자율예산제의 일환으로 단과대학별 등록금 책정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단과대학에 예산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양대 역시 현재의 조건에서는 자율책임경영제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양대 기획평가팀 관계자는 "국내 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등록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산의 여유를 갖기 어렵

다"며 "단과대학에 예산 자율권을 주기 힘들어지면서 자율책임경영제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실패의 배경에는 단과대학별 격차도 있었다. 단과대학에 운영 책임을 부여할수록 학과별 인원조정이나, 등록금 수입 격차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은 결국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대학본부 차원의 정책 조정에도 목매는 구조로 회귀하도록 만들었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임은희 연구원은 "자율운영제 도입 취지에 따라 단과대학이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예산권이 본부에 종속돼 있다"며 "실시 배경에는 단과대학별 수입 확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과대학마다 차이가 있고 한계가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율운영제 존속, 단과대학별 예산 확보에 달려

우리학교가 겪고 있는 자율운영제 문제는 다른 대학 역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수록 법인 전입금은 감소하고, 그만큼 교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대학의 재정사업은 '임대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최근 건설 경기와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다. 기부금 역시 대부분 건설 중심의 목적기금이어서 단과대학의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자율운영제가 그 취지를 살려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금 논의 구조부터 다듬을 필요가 있다. 대교연 임 연구원은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에서 등록금 산출 근거는 개괄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며 "단과대학별로 적정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도 단과대학별 구성원이 참여해 책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뒷받침 돼야 자율운영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자율운영제가 겪고 있는 문제 탓에 다시 본부 중심의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는 편의적인 발상으로, 학문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학 경영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칼럼앤컴퍼니 최은석 상무이사는 "대학 규모가 커지면서 총장 한 명이 모든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규모가 큰 기업에도 본부장이 있는 것처럼 중간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미국 대학처럼 RCM(Responsible Center Management) 체제를 도입해 단과대학 학장들이 자유롭게 입학정원 설정, 교·직원 임금 책정, 질 좋은 강의 유치 등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향후 대학구조개혁 속에서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우리학교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우리학교식 자율운영 시스템을 구성원과 논의해 나가야 한다.



단과대학별 적정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과정에도 해당 구성원이 참여해 책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가 뒷받침 돼야 자율운영제가 가능할 것

-대학교육연구소(KHEI) 임은희 연구원



| 학군사관(ROTC) 55·56기 모집안내

2014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오늘의선택
내일의리더
대한민국 ROTC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 55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 56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4년 3월 3일 ~ 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서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5 (토), 합격자 발표 : 4. 25 (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 4. 28 (월) ~ 5. 15 (목), 합격자 발표 : 6. 5 (목)
 - 신원조회 : 6. 9 (월) ~ 8. 17 (일)
 - 최종합격 : 8. 21 (목)
- 문의처 : 학군교 (043)830-6031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 Training Corps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 양성과정입니다.



미래를 향한 젊은 도전
ROTC!

칼럼



류재환 교수
동서대학교학원·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실장을 맡고 있는 류재환 교수는 우리나라 '통합의학' 분야의 전문가다. 한의학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리학교에 있어 동·서 의학의 통합은 잠재력 있는 연구 분야다. 그가 말하는 양방과 한방의 융합을 통한 '제3의학' 창출 방안에 대해 들어 봤다.

‘제3의학’의 미래 ②

연재순서

1회: 제3의학(통합의학)의 개요

2회: 현 의료상황 및 향후 방향점

3회: 제3의학(통합의학)을 통한 의료계 새로운 패러다임

4회: 현 경희대·의료원 상황 및 발전방향

한방-양방, 상호보완 통해 문제점 극복해야

우리나라 양의학의 역사는 1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근대 서구권의 의료선교를 통한 '의료 시혜'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양의학은, 일제 강점기에 태동한 서구식 의학교육으로 그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에 이뤄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료계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한편, 고려시대 후 중국으로부터 본격 유입된 한의학은 전 백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한 채 일부 집권층, 부유계층을 중심으로 소비되었다. 후대로의 계승 역시 체계화되지 못한 채 구전(口傳), 혹은 개인 간의 노하우 전수 등의 형식으로 이뤄지며 그 명맥을 이어왔다. 한의학의 의료체계가 근대적으로 다듬어 진 것은 1945년 이후의 일이다. 해방 후 한의학을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계승·발전시키자는 한의학계의 주장으로 1960년대 초에 '한의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후 현재에는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에서 6년제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원화 의료체계를 형성하게 됐다. 중국의 경우 '변형된 이원화 의료체계'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두 의료체계가 양립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의료체계가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먼저 양의학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국 양의학은 짧은 기간에 임상 측면에서 높은 경지에 도달했지만, 체계적인 기초의학 연구에 대한 학문적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임상에 있어서 의료보험수가 및 경직된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은 종종 의료계의 변형되고 왜곡된 의료를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 한의학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2014년 현재, 양방 의사 대비 한의사 수는 20%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출될 전망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 인력의 의료적 활용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데 있다. 가령 2014년 현재 2만 명 이상의 양방 의료인력은 양의학의 다양한

분과 및 영역에서 의료배치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도시 중심의 개원'이나 소수의 '봉직의(pay doctor)'로 국한된다. 한의대 등의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한의사들을 제외하면 한방 의료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도시 지역에서 개업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결과 지난 10여년 전부터 도시지역 한의원의 수요 대비 공급 과잉 현상이 한의학계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점으로 두드러지게 됐다.

한의학이 당면한 이 같은 문제는 한의학 전체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위기감'에 대해 협회, 학회, 대학, 개원가 등 한의학 전반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의학 분야에서 전국 제일인 우리학교의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 사회적 환경의 변화 역시 한의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의학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기대감 감소, 치료효과에 대한 의구심, 한약 부작용에 대한 우려, 의료비 문제 등이 한 데 어우러져 점점 한의학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유행처럼 번지는 홍삼 관련 제품, 건강 보조

식품, 영양 보조제 등도 한의계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의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 효과 영역의 한계성과 그 역량의 부족함, 둘째,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성과 재현성, 그리고 감별진단의 한계점과 이로 인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 셋째,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넷째, 치료기술 및 진단기기 개발이 낙후됐다는 점, 다섯째, 고유 전통의학의 계승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여섯째, 한의학과 양의학 간의 학문적 교류 및 노하우 공유가 경직되어 있어 학문적·임상적 교류가 차단됐다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의학에 대한 의존성이 알게 모르게 팽배해있다는 점 등이다.

점차 목을 죄어오는 듯한 이런 상황에 대해 한의학계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의학 본연의 특수성에 있다. 한의학은 그 특성상 새로운 이론이나 실험학적 이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기초와 임상 연계성 문제, 전문 한의인력(즉, 특출한 전통 한의사)의 배출 문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학제 비율 문제 등 학제 내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이원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살펴보았듯 이들 두 의료체계는 각각 나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을 개선해서 현행의 이원화 의료체계를 보다 공고히 발전시켜 가느냐, 혹은 양측의 장점만 모아 단일화 의료체제로 전환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장기적인 한국의 의료 방향성을 논하는 이런 주장들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세계 의학의 경향, 한국 전통의학의 세계 진출 가능성, 한약 및 제약의 대외 수출적 관점, 전통 한의학 분야의 발전이라는 관점, 국민 보건 의료 상의 장점과 경제적·비용적 현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다.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양방과 한방이라는 이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두 의료체계'는 매우 긴밀하게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다고 본다. 보다 많은 양·한방의 의료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초 의학 분야와 임상 의학 분야를 고루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자유로운 임상 연구, 토론 결과 및 치료 방법 공유 및 병행 치료 등을 통해 임상기술의 진일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현재의 경직된 이원화 의료체계로부터 통합 의료로 향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통합 의료 패러다임은 전 의료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가령 통합 의료를 주관하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임상 및 기초의학의 각 분야 참여 의료인과 파라메드(paramed, 이를테면 영양의학, 요가, 심리치료, 명상, 재활치료 등)를 아우르는 일종의 센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환자 및 임상 케이스에 대해 기초의학연구 부문에서 양·한방이 공동으로 접근하는 의료체계가 됨으로써, 향후 광의로서는 우리나라, 협의로서는 우리학교가 지니고 있는 양·한방의 모든 노하우를 유익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를 그려본다면, 현재 경직된 이원화 된 의료 체계 하에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의학적 통합을 이루는 통합 의료 분야의 상세한 설계 및 개발과 더불어 임상 과목으로서 체계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하루 빨리 착수하는 것이 시급한 시기라고 하겠다.

“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이원화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살펴보았듯 이들 두 의료체계는 각각 나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긴밀하게 상호보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



침체된 한의학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양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교양리포트③

공간읽기 : 인간, 건축, 도시

우리 삶이 반영된 공간을 바라보는 깊이의 차이



정은혜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공간읽기: 인간, 건축, 도시’는 우리 삶터로 주어진 ‘공간’에 대해, 그 중에서도 인간에 의해 형성된 ‘경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가시화된 ‘건축’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 건축이 집중돼있는 ‘도시’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함께 해석하고 소통해 나가자 한다.

인간의 시공간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이뤄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시간에 대한 담론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왔던 반면, 공간에 대한 담론은 상대적으로 부차시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포스트모던(post-modern) 담론이 등장하면서 공간은 학문적 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려지고 공간에 대한 시각이 변모하기 시작한다. 이후 공간에 대한 담론은 철학, 건축학, 사회학, 지리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공간을 물리적·기하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공간법칙을 규명하기도 하고, 인간의 장소에 대한 경험과 장소 정체성의 형성 장소로 인식해 현상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기도 하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과 노동의 관계로 바라보며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규명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간읽기: 인간, 건축, 도시’는 이러한 공간을 맥락주의(contextualism)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 차별화하는 데에 두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만들어지고, 삶의 공간적 차원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간읽기’는 몇 가지 공리를 통해 경관을 바라보고, 읽고, 써 나가는 방법을 터득해 내기 위한 작업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거리에도 수많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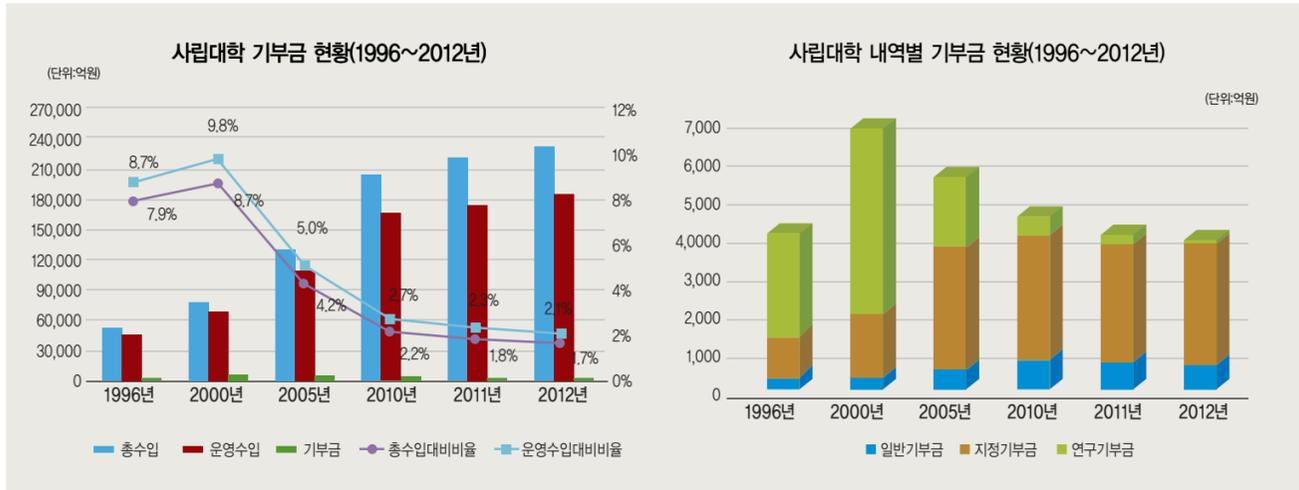
을 수행하는, 감성적 독해의 시간을(수업시간을 통해서나마) 갖고 있다. 갑작스럽게 일상공간을 텍스트로 바라보고 감성적으로 독해하기란 처음부터 쉽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강의 시간을 통해 필자가 직접 촬영한 답사와 여행 사진 등을 통해 이야기하고 공감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있음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당연하거나 상식으로 치부돼 무관심했던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각의 차이...이것이 발생했다면(실사 이로 인해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하더라도), 그 인식만으로도 이미 내재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 내재된 변화를 위해 본 강의 ‘공간읽기: 인간, 건축, 도시’는 우리 삶터로 주어진 ‘공간’에 대해, 그 중에서도 인간에 의해 형성된 ‘경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가시화된 ‘건축’에 대해, 마치

막으로 이 건축이 집중돼있는 ‘도시’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갖고 함께 해석하고 소통해 나가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주제란 상세히 말한다면 ‘동물원, 감옥, 병원, 학교, 궁전, 박물관, 광장과 거리, 유명한 상징물이나 랜드마크, 백화점과 재래시장, 종교건축, 그리고 아파트 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며 흔히 접하는 경관에 대한 주제거리를 화두로 삼아 과거로부터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역사와 그 의미를 찾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수강생 모두는 나와 더불어 독자(reader)가 되어 저자(writer)가 생산한(produce) 경관을 소비(consume)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저자의 특정한 가치나 신념 등이 반영된 경관을 끄집어내어 그 내포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주제를 역시 다양한 장소적 사례를 통해 공간을 살펴보고 우리 삶을 재고해보는 시간이 바로 ‘공간읽기’이며, 바로 이 시간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넓은 시각·안목의 차이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마도 이것이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이야기하는 본연의 연구 태도가 아닐까 한다. 교양은 교양다워야 하기에 ‘공간읽기: 인간, 건축, 도시’는 보다 인간답고 자유로운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느낌이 있는 수업이고 싶다.



사립대학의 총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운영수입 대비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소수 대학에 편중된 기부금 '한계' 정부지원 · 대학개혁으로 극복해야

대학을 생각한다 ④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KHEI) 연구원

대학들이 재정을 확보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는 기부금이다. 대학에 따라 방식과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오늘날 대학들은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마도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모교로부터 받아보게 되는 게 '발전기금' 모금 용지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기부금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전체 기부금 액수가 너무 적고, 그마저도 특정 대학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사립대 기부금(연구기부금 제외)을 살펴보면, 2000년 1,937억 원에서 2012년 3,761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나 수입총액과 비교해보면 1.6%에 불과하다. (일반대, 교비·산학협력단회계 기준) 2012년 경희대 기부금수입도 102억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10여 년 간 전국 사립대학 기부금이 크게 늘지 않고 3,700~4,000억 원 수준에 머물

고 있어 문제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기부금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그마저도 일부 대학에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2012년 3,761억 원의 기부금 중 상위 10개 대학의 기부금은 1,921억 원으로 무려 51.1%에 달한다. 이들 대학은 주로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로, 경희대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 대학이 기부금을 독식함에 따라 대다수 대학은 더 기부금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중된 기부금 쏠림 현상

그렇다면, 대학들이 기부금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대학들이 기부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이 겹치고,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기부를 위해 지갑을 싣듯 열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두 번째로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개인 기부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대학 기부금 확대의 걸림돌이다. 기부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부금 3,761억 원 중 기업 기부금은 3분의 1 정

도인 1,319억 원이다. 개인 기부금이 1,092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기업의 역할은 미미하다. 대학교육의 대표적 수혜자이자 자급력을 지닌 기업의 기부가 늘지 않는다면 대학 기부금 확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립대학이 보여주는 모습 역시 기부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사학 부정·비리가 언론을 장식하고, 부실한 교육에 실망하는 것은 대학 생활의 필수 코스가 됐다. 심지어 작은 정보 공개조차 꺼리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대학 당국의 모습까지. 모교에 대한 자긍심은 고사하고 등록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며 졸업하는 게 다반사인 상황에서 기부에 대한 의지가 생길 리 만무하다.

민간 재정 의존 심한 우리나라 대학

대학들은 대학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교직원이나 학부, 동문들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정부 역시 세제 혜택을 거론하며 기부금 확대를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기반으로 민간 지원을 보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순리다.

또한 대학들 역시 기부금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려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동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대학에 기부에 나서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학벌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겹쳐져, 개인이나 기업들이 특정대학에 기부금을 몰아주면서 대학 기부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물론 기부금의 대학 편중은 기부 주체의 의사가 일차적이기 때문에 대학을 탓할 수만은 없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편중 문제는 전체 대학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학벌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겹쳐져, 개인이나 기업들이 특정대학에 기부금을 몰아주면서 대학 기부금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물론 기부금의 대학 편중은 기부 주체의 의사가 일차적이기 때문에 대학을 탓할 수만은 없지만, 이처럼 극단적인 편중 문제는 전체 대학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여마당

신명아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교수

공적 사안, 공적으로 풀자 - '교수연대' 이메일 통신을 보며

아직 봄꽃이 피기엔 바람이 세차다. 꽃이 화려하게 피어서 나비와 벌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기 마련인데, 이런 봄의 전령으로 마음이 들뜨기는커녕 교수연대의 편지들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지금까지 간혹 특정 경희 구성원들이 학교를 생각한다며 메일을 보낸 바 있기에, 교수연대의 메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찾아들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도 학교의 재정 문제나 취약점을 알리는 글들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유포될 것이 걱정이었다.

한때 교수회의의 청원위원장으로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교수회의의 대표성에도 혼란을 주는 이 메일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의견으로 기쁨을 부여 불이 더 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접었다. 그러나 최근에 보내온 메일에서 형제간 반목을 언급한 내용은 그 위험 수위를 넘었기에 이 글을 올린다.

교수연대는 통신 제6호에서 교수연대 소속 교수 세 명이 이사회 개최 직전 행한 행동을 사과하면서, "관선이사 파견이 우려되는 모든 원인은 전적으로 조정원 · 조인원 두 형제 이사의 반목과 대립으로 인한 이사들의 패가름 때문이라는 점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공적인 학교의 위상이 개인적 차원으로 채색돼 이상한 소문이나 과장된 맥락 속에서 극적으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공적인 차원의 내용은 공적으로 해결돼야지, 이런 표현으로 채색될 때 부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필자로 하여금 펜을 들게 한 것은 복잡한 문제를 이런 하나의 층위로 환원하는 위 내용의 위험한 논리 때문이다. 또한 공적인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환원 논리가 쓸데없이 무수한 낭설을 발생시킬 우려 때문이다.

어느 집안이고 형제간에 갈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일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론화될 때, 이는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심각한 오해와 낭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최근에 다른 학교 교수로부터 우리학교에 대해 이런 언급을 받은 것은 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공적인 차원으로 변화돼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또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미래에 화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 공식화되면서, 공적인 학교의 위상이 개인적 차원으로 채색돼 이상한 소문이나 과장된 맥락 속에서 극적으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공적인 차원의 내용은 공적으로 해결돼야지, 이런 표현으로 채색될 때 부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이런 언급은 피해야 한다.

최근 관선이사 가능성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교수연대는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총장의 글에 대한 논평에서, '이 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전체 교수에게 발송해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교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다. 부디 교수연대는 이러한 비판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하길 바란다.

※ 필자의 견해는 대학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면에서 이어짐

예언에서부터 풍자와 비아냥에 이르는 어조가 일정한 구조 없이 자유로이 뒤섞이며, 독일어, 영어, 산스크리트어까지 갖가지 외국어가 동원되고, 고대 그리스의 고답적인 비극에서부터 근대 대중가요의 가사에 이르기까지 귀천불문의 온갖 장르의 문학작품에 대한 암시와 인용이 가득하다.

하지만 온갖 종류의 글과 다양한 언어가 혼재하고 이들을 통제하거나 걸러주는 고정된 화자가 없는 이 전위적인 형식이 단순히 실험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어지러운 형식은 빈부와 귀천을 가리지 않는 온갖 부류의 인간군상과 호젓한 카페에서부터 매마른 황무지, 어지러운 술집, 혼자 사는 여인의 아파트, 그리고 심지어는 귀부인의 침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인간 타락의 갖가지 막장드라마

를 담아내는 데 가장 적합해 보인다. 합리성과 과학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진보에 대한 확신과 인간에 대한 무한 신뢰로 시작된 근대의 기쁨은 제국주의의 시기와 일치하는 정점에 이르러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탐욕과 무관심,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온 세상이 정신적 불모지인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이 황무지를 지배하는 것은 혼돈과 절망이다. 《황무지》가 보여주는 황무지는 이런 곳이다.

실험적인 형식과 현실비판의 내용은 현대예술에서라면 이제 흔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황무지》는 이런 흔한 작품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작품성을 자랑한다. 이런 최상의 글쓰기는 엘리엇의 글 솜씨가 여느 작가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경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학이 황무지로 변했다고 한다. '어디선가 방울져 떨어지는 물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건 물 한 모금



탐욕과 무관심,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온 세상이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대학이 황무지로 변했다고 한다. '어디선가 방울져 떨어지는 물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건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방랑자가 되어 불모의 땅을 헤메고 있다'는 것이다. 《황무지》를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사월이 잔인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엘리엇의 음악에 취해볼 수도 있다. 황무지에 비를 내릴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 엘리엇이 찾는 비구름이 동양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이라는 점이 조금 맘에 걸리기는 하지만.

구할 수 없는 방랑자가 되어 불모의 땅을 헤메고 있다'는 것이다. 《황무지》를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사월이 잔인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고 엘리엇의 음악에 취해볼 수도 있다. 황무지에 비를 내릴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 엘리엇이 찾는 비구름이 동양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이라는 점이 조금 맘에 걸리기는 하지만.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1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광고기획 및 제작 키랄로그 포스터 부등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청소식지 사보 출판 간행물 제작 C·BI ☎ 751-5939

스포츠 / 문화



춘계 럭비리그 아쉬운 3위

박민혜 객원기자 thfldhksf@naver.com

우리학교 럭비부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경산시 송화 럭비구장에서 열린 '2014 전국 춘계 럭비리그전'에서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총 전적 1승 2패로 아쉽게 3위에 머물렀지만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다양한 득점 경로와 향상된 전력은 이번 시즌 럭비부의 선전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첫 상대는 고려대였다. 지난 11일에 진행된 경기에서 우리학교 선수들은 초반부터 상대의 기세에 밀려 대량 실점을 하면서 7-31로 전반전을 종료했다. 후반들어 럭비부는 전열을 가다듬고 달린 모습을 보였다. 연이어 트라이를 찍으며 전반전의 실점을 만회하려했지만 벌어진 점수 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최종 스코어 19-38로 패했다. 이어서 지난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에게 통탄의 패배를 가져다줬던 단국대와의 시합이 지난 15일에 열렸다. 전반에 단국대 박지훈 선수에게 트라이를 내주며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포워드들의 정확한 패스로 전반 35분 제강준(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동점 트라이를 성공시키며 팽팽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5-8로 뒤진 채 마무리했다. 후반이 시작되고 전열을 가다듬은 럭비부는 단국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한상훈(스포츠지도학 2012), 주상우(스포츠지도학 2013), 이석균(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연달아 트라이를 만들어냈고 여기에 전담 킥커로 나선 임동건(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컨버전 킥

을 실수 없이 성공시키며 29-8로 압승을 거뒀다. 지난 18일 마지막 상대는 연세대였다. 우리학교는 초반부터 연세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며 연이어 실점을 허용했다. 교체 투입된 문선일(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시키며 반전을 노렸지만 끝내 주도권을 되찾지 못했다. 럭비부는 경기종료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의 트라이만을 만들어내면서 12-55로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1승 2패로 최종 3위를 기록했다. 럭비부 주장 김도근(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는 "열심히 동계 훈련을 했는데 우승을 놓쳐 아쉽다"며 "올해 우리팀 컨디션이 좋은 만큼 대령기에는 최선을 다해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억해 갈 '상처'

'리얼퍼플', '위안부' 이해 행사 마련
정호빈 객원기자 speed5975@khu.ac.kr

【서울】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리는 '꽃보다 할매'가 지난 15일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여성주의 실천 소모임 '리얼퍼플'이 주관했으며, 우리학교와 동국대 학생 21명이 참가했다. 리얼퍼플 옥지은(철학 2010) 소모임장은 "최근 황금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공식적으로 생존하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는 55명이 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의 만행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전쟁이 아닌 평화와 인권을 외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일정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우선 사전교양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용어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세워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과거 정신대, 위안부, 성노예 등 여러 용어가 혼용됐으나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로 현재는 위안부에 작은따옴표(';')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전시 상황에서 유린당하는 여성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건립됐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여한 작품과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제작된 김준기 감독의 3D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인 '수요 집회'의 공식 주제가인 '바위처럼'을 배우기도 했다.

이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실무자와 함께 '위안부' 할머니 세 분이 거주하는 '쉼터'에 방문했다. 학생들은 마주하는 자리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배움의 길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라며, "배움의 길을 나아가 이 나라의 기둥이 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나라의 힘이 약해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평화로운 때를 유지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행복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에 장내는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어서 후마니타스칼리지 통기타소모임 '통통'의 재능기부 공연이 있었다. 통기타 반주에 맞춰 학생들은 '찰랑찰랑'과 '아파트', '바위처럼'을 제창했다. 할머니들의 저녁 식사 시간이 겹쳐 학생들은 할머니들과 오랜 시간 마주하지는 못했다. 김 할머니는 "조금만 더 일찍 올 것이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쉼터에 다녀온 이후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에서는 참가 학생 모두 울며 안에 수요 집회에 참석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유리(경영학 2014) 양은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무엇을 위해 수요일마다 집회를 나가는지 잘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돼 정말 의미 있었고, 앞으로 친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개도(展開圖)전 미대 미술관(KUMA)에서 다음달 3일까지 개최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우리학교 미술대학 미술관 'KUMA'에서 창작집단 '그냥'의 전개도(展開圖)전



圖)전이 다음달 3일까지 열린다. 전개도전 참여작가들은 전시소개를 통해 '과제전을 포함한 교내 작은 전시들,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의 뒤로 실망감과 공허함,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져만 가는 현대 미술을 접하면 막연히 커지는 미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작품전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관람비는 무료이다.



3월 넷째 주(3. 24~3. 28)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명	대상	모집부서	일시	장소
메리츠화재 채용연단	글로벌	MFC 금융전문가 과정	3.24(월) 10:00~17:00	청운관 1층 상강실
글로벌이노비즈 채용설명회 (글로벌이노비즈-글로벌인사담당자 초청 예정)	경영관리, 영업, 공학서비스 등	경영관리, 영업, 공학서비스 등	3.25(화) 14:00~16:00	청운관 B117호
글로벌이노비즈 채용연단	글로벌	경영관리, 영업, 공학서비스 등	3.25(화) 16:00~18:00	청운관 1층 상강실
그린피스 채용연단	환경서비스	환경서비스	3.26(수) 13:00~17:00	청운관 1층 상강실
그린피스 채용연단	환경서비스	환경서비스	3.26(수) 15: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전 시간 5분전까지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입장료: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특강

행사명	진행자	일시	장소	비고
자기소개서 특강 (2차)	이희성 객원교수	3.24(월) 11:30~13:20	내요관 103호	3차 특강(3.31일)
공무원 대비 특강	장크리아	3.24(월) 15:00~17:00	오바스를 111호	
매그놀리아 인증제 설명회	김수진 객원교수	3.26(수) 16: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경희 인증제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연수신청 후 별도의 승인연락 없이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특강 관련 출석입장료: 특강 종료 후 현장 에서 발급, 배부

3. 온라인 취업솔루션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외)

- 구성: 직무적성검사 모의시험, 서류전형(기업분석자료, 합격자 자기소개서), 면접자료, 동영상 강의 등
- 이용방법: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job1.khu.ac.kr) 로그인 → 좌측 추천프로그램 메뉴 → 온라인 취업 솔루션 선택

4. 추천채용

회사명	추천인원	모집부서	마감기한
LS네트웍스	분야별 3명	경영관리, 자금, 홍보	3.26(수) 9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ob@khu.ac.kr)

·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추천채용공지 참조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3월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실질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 형태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팅 4명	월~금 (각 컨설팅별 일정 상이함)	오바스를 354호~356호 제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성적 - 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팅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단상담	이중구 교수(학전지 연구실장) / 공운관,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내요관 103호	
On Line / Off Line 상담	정진영 팀장(취업지원팀)	상시	On Line(jeong@khu.ac.kr) Off Line(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 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 컨설팅별 세부일정

컨설팅 형태	컨설팅 일정/내용	장소
이중구 교수	- 매주 월 18:30~19:30 : 공운관 대기업 취업상담(그룹상담) - 매주 월, 목, 금 : 9시~17시 집단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 시군급 : 3명 집단 컨설팅) - 매주 화, 수 : 11 컨설팅 - 화 15시~16시 : 11 컨설팅 - 수 13시~14시 : 11 컨설팅 - 수 15시~16시 : 11 컨설팅	내요관 103호
이연의 객원교수	- 10시~12시 : 공개 취업상담(5명 집단) - 15시~16시 : 1~3학년 진로상담(5명 집단) - 수요일 - 10시~12시 : 자소서 첨삭지도(5명 집단) - 15시~16시 : 11 진로상담(4, 4학년 신생)	오바스를 355호
박연경 객원교수	- 목요일 - 15시~16시 : 로스쿨 진로상담(5명 집단) - 금요일 - 10시~12시 : 공개 취업상담(5명 집단) - 14시~15시 : 1~3학년 진로상담(5명 집단) - 16시~18시 : 로스쿨 준비반 상담(5명 집단)	제법대 107-2호
이희성 객원교수	- 매주 월요일 - 9시~11시20분 : 11 컨설팅 - 11시30분~13시20분 :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장소 내 103호) - 14시30분~16시30분 : 13 컨설팅(특강 참여학생 대상) - 16시30분~18시 : 13 컨설팅(특강 참여학생 대상)	오바스를 354호
오승준 객원교수	- 매주 월요일 : 1시간 단위 - 9시~12시 : 11 컨설팅 - 13시~18시 : 11 컨설팅 (4월부터 13 오의면접 예정)	오바스를 356호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4-1학기 통합고시반 선발공고

[5급(기술, 행정, 의무), 번리사, 공인회계사, 7급공무원반생]

취업진로지원처에서는 국제캠퍼스 통합고시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는 학생
 - ① 5급(기술, 행정, 의무), 번리사, 공인회계사, 7급공무원 준비생
 - ② 경희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단,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 ③ 평균평점 3.0 이상
 - ④ 토익 700점 이상(토플 575점, 토플CBT 217점, 토를 IBT 82점 이상, 5급(의무) 제출된 영어점수 반영, 17급공무원반은 영어점수 제외)
 - ⑤ 진로상담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선발인원 : 0명
3. 지원내용 - 가. 시설지원 ① 위치 : 예지원 송관 B동 4층 5호 ② 시설 : 공부방(32인), 기숙사(31인), 스타디움, 인터넷 강의실, 휴게실, 자료실 및 전산실 등
 - 나. 장학지원 ① 합격자 장학금 : 1차시험 합격자는 1년간 등록금 면제, 최종합격자는 졸업시까지 등록금 면제
 - * 기타 지원관련 세부사항은 경희대학교 장학규정에 따름
 - * 7급공무원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다. 학습지원 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특강비 지원 ② 시험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제출서류 : 지원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공인영어성적표
5. 제출처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학생회관 1층)
6. 지원서 접수기간 : 2014. 3. 17(월) ~ 3. 25(화) 09:30 ~ 17:00
7. 전형방법 : 1) 필기고사 : 2014. 3. 28(금) 17:00 멀티미디어교육관 B204호
 - 5급(기술, 행정, 의무)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20문항)
 - 번 리 사 : 민법개론, 신법개론, 자연과학개론 각 20문항
 - 공인회계사 : 경영학, 경제원론, 회계학 각 20문항
 - 7급 공무원 : 국어, 영어, 한국사 각 20문항
 - 2) 면접 : 2014. 4. 1(화) 16:00(필기고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공지)
8. 합격자 발표 : 2014. 4. 2(수) 12:00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9. 고시반 입주예정일 : 2014. 4. 4(금) 09:00 예지원 고시반(추정) 및 OT실시 방배정류 입주
10. 문의 :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전화)031-201-3061
 - 이메일 : gos@khu.ac.kr
 - 홈페이지 : http://career.khu.ac.kr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